



“흥분해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12일 광주시 북구 중앙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끝마친 뒤 흥분한 표정으로 교문을 나서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능 외국어·언어 어려웠다

수리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

12일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외국어(영어)와 언어영역이 변별력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7.8면>

그동안 변별력을 좌우했던 수리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언어와 외국어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이다.

다만 언어영역에서 평소 교과서 등에서 많이 접했던 지문들이 다수 출제돼 수험생이 느끼는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다소 낮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수능 출제위원장이 정병현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맞췄고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 보다는 좀 더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됐고, 특히 수리영역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올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영 진학사 수능 평가위원은 “언어와 외국어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어렵거나 비슷했고, 수리는 ‘가’,

‘나’형 모두 작년과 9월 모의평가보다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BS는 “언어의 경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고, 특히 비문학(읽기)이 까다롭게 출제됐다. 또한 지문별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항이 1개씩 출제돼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연종 광주지역 고교 진학부장협의회장(송원고)은 “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하고, 올 6, 9월 모의고사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면서 “특히 수리는 전년보다도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봤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수능에는 수험생 4만1천214명이 응시했다. 결사율은 광주 5.23%,

전남 5.41%로, 전년 대비 각각 1.23%와 1.56%(이상 1교시 기준)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 광주·전남에선 신종플루로 205명의 수험생이 분리 시험실에서 격리된 채 시험을 치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까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한 뒤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다음 달 9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수능 문제풀이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양심불량’ 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 분양 전환 부당이익...광주고법 “가구당 800만원 돌려줘라”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법원이 수억원대의 분양금을 입주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전문학적인 역수의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이익금을 돌려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관사 선재성)는 12일 서모세 등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 총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가구당 7천700여만~9천여만원인데, LH는 이보다 800여만원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LH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위법으로 간주한 것으로,

복수국적 첫 인정

국적법 개정 추진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대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외국국적을 가진 고품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국적이탈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관련기사 3면>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 중 병역을 이행했거나 22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우리국적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온 외국인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고품의 재외동포, 해외 입양했다가 한국국적을 회복한 사람, 국내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살아온 화교 등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림

가을속으로 페달 밟아요

내일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축제 모든 참가자 상해보험 자동 가입

‘녹색성장’의 아이콘 자전거문화의 확산을 위해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열립니다. 환경과 건강을 모두 살리는 자전거 타기를 널리 보급하고 참가 가족·동호인들의 친목을 다지는 이번 자전거 축제는 명실공히 호남 최대의 자전거 문화축제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늦가을 아름다운 남도의 햇살에 빛나는 은륜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회 홈페이지 bike.kjmedia.co.kr

- 일시: 2009년 11월 14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 장소: 광주 금호 패밀리랜드 주차장
- 총목: 22km로드레이스/4km거북이 행진
-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 주관: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스포바스
- 협찬: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전남개발공사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시업본부
- 문의: 062) 220-0541

- *로드레이스 참가자 전원에게 고급 바리크 용품을, 거북이 행진 참가자 전원에게 자전거 안전모를 드립니다.
- *거북이 행진 참가자 편의를 위해 당일 현장에 자전거 10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접수 062) 220-0541>

光州日報社

네이버 뉴스캐스트 'My뉴스 설정'에서 '광주일보'를 클릭하세요

경유용 다목적 첨가제

소액 자본금 투자로 확실한 고소득 창출

광주·전남·시·군
판매점 선착순 모집

제안서에 작성

- 출생지(주민등록지) 및 현재 거주지(주소)를 명시하여 기재한다.
- 제안서의 내용(투자금액)에 의해 합당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 점도(점도)를 기재한다.
- 판매처를 지정하여 기재한다.
- 소액(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한다.
- 본 제안서를 작성한 후 1주일 이내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 판매처 문의처: 062-220-0541

▶ 문의처: 062-220-0541

▶ 문의처: 062-220-0541

▶ 문의처: 062-220-0541